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추석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금강경 독경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말과 행동으로 읊기는 사람
 번뇌와, 증오와, 허황한 생각 떠난
 생활 이어가며,
 바른 생각, 자유로운 마음, 현재, 미래 모든 집착
 다 여의고
 덕 높은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이네.

Whereas if a man speaks but a few holy words and yet he lives the life of those words, free from passion and hate and illusion – with right vision and a mind free, craving for nothing both now and hereafter – the life of this man is a life of holines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드러낼 것과 감출 것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세 가지가 있고, 반대로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일도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한 세 가지 일인가. 첫째는 여자다. 여자는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둘째는 바라문의 주술이다. 바라문의 주술은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셋째는 샛된 소견이다. 샛된 소견은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이것이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은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것이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세 가지 일인가. 첫째는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둘째는 여래의 법이다. 여래의 법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셋째는 여래의 말씀이다. 여래의 말씀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이것이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부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여자와 주술과 샛된 소견은 드러나지 않아야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 여래의 법과 여래의 말씀은 드러나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여래의 법을 밝게 드러내고 덮어지지 않도록 힘쓰라.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증일아함경> 12 권 삼공양품(三供養品) 제 4 경

조계종 종정을 두 차례나 역임한 고암상언(古庵尙彦) 화상은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였다. 평생 화를 내는 일이 없어 사람들은 그분을 ‘인옥보살’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고암화상의 수행자다운 면모를 짐작케 하는 일화 한 토막.

젊은 시절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에서 한철을 난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수십 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는데 고암스님이 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밤새 대중스님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이었다. 조실스님은 은밀하게 젊은 수좌들을 시켜 누가 이런 기특한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 사람은 고암수좌였다. 조실스님은 이 일을 짐짓 모른척 하도록 했다. 결제가 끝나고 해제가 되자 조실스님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제기간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고암이다. 고암은 밤마다 일어나 여러분의 신발을 닦았다. 자기를 낮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남몰래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니 앞으로는 고암을 인옥보살이라고 부르라. 또 고암이 마음공부 잘 하도록 그 일을 알고도 모른척 해준 대중들도 참 훌륭한 도반이다. 이런 아름다운 일은 널리 알려도 무방하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덮어두어야 하는가를 일러준다. 세상에는 남의 작은 선행도 칭찬해주고 복돋아 주려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비난하려는 사람도 있다. 불자는 이중 누구를 닦아야 하겠는가. 모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연은 드러나게 해주고, 모든 더럽고 추한 이야기는 땅속에 묻어두려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잠계(箴偈)를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제나 자기 코끝이 뽀족한 것만 보고 남의 눈동자가 모난 것은 묻지 말라.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해 간다면 곳곳이 도 닦는 곳이 되리라.(常見自己鼻尖頭 莫問他人瞳子方 若能如是修行去 處處無非是道場)”

- 불교 신문에서 발췌 -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것” -

- ‘믿음 有無’에 따라 네 내편 가르치지 않고 ‘啓示 의존’ ‘무조건 신앙’ 결코 강요 안해-

보드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부처님은 지금의 인도 동북부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폈다. 바라나시, 라자가하, 사밧티, 카필라바스투, 마이살리 등 당시 인도를 대표하던 도시들에서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不死)의 가르침’을 전했다. 많은 출가자들과 재가 신도가 생겼고, 승단도 자리 잡았다. 라자가하(왕사성)의 죽림정사, 사밧티(사위성)의 기원정사, 밤사국 수도 코삼비의 고시타 아라마(園林) 등 적지 않은 정주처(定住處)도 생겼다.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부처님과 승단에 바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은 승단에 귀의했을까. 깨달음이 대단히 높은 곳에 있는 ‘그 무엇’, 아니 일반인들은 도저히 다가가기 힘든 ‘그 무엇’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요즈음.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점에서 초기의 신도들은 매료됐을까. 아니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일까.

〈맛지마니까야〉 〈마하박가〉 〈쌍웃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등 초기불전을 읽어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승단에 귀의한다. ‘이해도 필요 없고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부처님은 가르쳤다. 초기불전 어디에도 ‘수행도 해보지 않는 네가 무얼 안다고 감히 말하느냐’는 그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은

질문에 대해 항상 고구정녕하게 대답해준다.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이를 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심과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이처럼 부처님께서 온갖 방편을 세우시어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 그 가르침(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마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는 신자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쌍웃따니까야 42:6)고 말한다.

초기불전엔 무엇보다 “진리는 말과 언어를 떠난 곳에 있으니,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는 식의 ‘지나친 수행’과 신비주의적인 설명은 거의 없다. 진리는 결코 신비주의와 관계가 없음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증험(證驗)되는 가르침을 폈다. ‘기도만 잘하면 모든 소원이 무조건 이뤄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태도를 누구보다 준엄하게 경계하고 비판했다. 〈쌍웃따니까야〉 (42:6)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 때 마침 부처님은 나란다 마을의 파바리감바라는 숲 속에 머물고 있었다. 이웃 마을의 촌장인 안반다카푸라(한역 刀師子)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먼저 “부처님이시여, 서쪽에서 온 브라만들은 물병을 높이 쳐들든지, 화환을 달든지, 물에 들어가 목욕하든지, 화신(火神)에게 공양을 드리든지 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역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신비적인 경향의 종교적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부처님이 반문했다. “촌장에게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다. 생각나는 대로 답해 보라. 어떤 사람이 깊은 호수에 바위를 던졌다 하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물려와 ‘바위야! 떠올라라. 바위야! 떠올라라’하며 기도했다면 어찌될까. 그 바위는 기도의 힘으로 떠오를까.” 촌장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처님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촌장이여! 여기에 남을 죽이고, 도둑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따위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이 물려와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하며 합장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까.” 역시 촌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촌장은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중략)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는 저를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두고 펼쳐지기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부처님과 코살라국

파세나디왕 사이에 있었던 ‘다이어트 일화’도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쌍웃따니까야〉 (3)에 의하면 파세나디왕은 ‘뒋박 분량’의 밥을 먹곤 했다. 하루는 막 식사를 마친 파세나디왕이 숨을

몰아쉬며 부처님을 찾아왔다. 숨을 몰아쉬는 파세나디왕을 본 부처님이 계송을 읊었다. “언제나 마음에 새겨/ 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여 더디 늙어가리.”

마침

바라문 학생 수닷사나가 파세나디왕 뒤에 서 있었다. “수닷사나야, 너는 부처님에게 이 계송을 배워 나의 식사 때마다 읊도록 해라.” 수닷사나는 파세나디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읊었다. 식사 때마다 계송을 들은 파세나디왕은 차츰 한 접시 분량의 음식으로 만족하기에 이르렀다. 나중에는 몸이 날씬하게 되어 손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참으로 부처님께서 현세의 유익함과 미래의 유익함, 이 두 가지의 유익함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네”하고 노래했다. 파세나디왕의 말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유익하고, 미래에도 유익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은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즉시적(即時的) 혹은 현생적(現生的)인 가르침’으로 번역하는데, 만약 부처님 가르침이 내세 왕생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과보(果報)는 죽음을 달리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과보를 기대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교설(敎說)이다. <쌍웃따니까야> (우파바나)에 따르면 우파바나라는 제자가 “부처님, 현생적인 법, 현생적인 법이라고 합시다만 대체 어떤 것이 현생적인 법입니까”하고 물었다. “우파바나야, 여기 한 사람의 비구가 있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 하자. 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염심(染心)을 일으켰다고 하자. 그때 그는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아, 내 속에 염심이 있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바나야, 그것이 현생적인 법이나라. 우파바나야,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비구가 있어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 하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염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치자. 그때 그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아, 나에게 염심이 없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바나야, 이것이 현생적인 법이나라.” 이것만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보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르침,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한 다음 들어도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닫혀 있는 진리가 아니라 열려있는 진리, 누구나 듣고 판단한 다음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르침,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쌍웃따니까야> (55:1)에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습니다. 즉 이 법은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고,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열반에 잘 인도하는 성질의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고 나온다.

결론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신비한 그 무엇’도 아니고, 하늘에서만 떠돌아다니는 황당한 것은 더군다나 아니며, 몇몇만 통하는 닫힌 가르침도 아니고, <쌍웃따니까야> 에 나오듯이 “현실적으로 증험되고,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으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지혜가 있는 이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누구나 실천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방인에게는 가르쳐줄 수 없고,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 신앙에 매달리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

선시감상:

산기운 구름 섞여

운곡충휘(雲谷徽, ?~1613)

산기운 구름 섞여 그윽해지고

개울물 햇빛 받아 맑게 구르네.

이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곳 있으니

외로운 피리 가락 가을소리 일어나네.

불자라면 누구나 범명을 받아야 하는지?

Q: 수계 법회에 참석하고 범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초보 불자라 범명의 뜻이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범명은 다 받아야 하나요? 바꿀 수도 있는지요? 아울러 불교의 입문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 ‘새 삶 서원하는 佛子’ 의미로 받아 담긴 뜻 헤아리고 새기며 살아야.

A: 처음 불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의 불교입문 과정은 생각처럼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출신 성분이나 가문, 학벌,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삼귀의(三歸依)의 발원과 생활규범,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을 계율을 받으면 그것으로 입문 과정은 충분했지요. 또한 그렇게 입문한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 불자로서 도반(道伴)이라 부르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수행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넓은 진행이 생활환경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생활 지도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많은 신자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도교육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먼저 일정기간 기본교육을 받고 수계를 받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다니기 좋은 절을 선택하고 신도등록을 하면 입문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기 쉽고 편한 절이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불자의 신행생활은 정기적인 기도와 법회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가기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수계를 받을 때에는 범명(法名)도 같이 받게 됩니다. 범명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범명은 불자, 즉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서원(誓願)하면서 받는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불교에 입문하고 수계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이름, 즉 범명을 받는 것입니다. 범명은 출가한 스님들과 재가 불자 모두 받습니다. 스님들은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尼)계를 받을 때 범명을 받지만 그 전에 은사스님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가 불자들은 오계나 보살계 수계를 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시 아는 스님들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형식이나 절차는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범명을 받는 점은 공통적이네요.

범명을 받는다는 것은 불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 전의 삶이 세상의 이익이나 많은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생으로서의 삶이었다면, 불자가 된 이후는 부처님 가르침의 삶이 큰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범명을 받은 불자들 중에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범명을 짓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는 이름이 아닙니다. 지어주신 스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새겨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범명을 짓는 방법은 스님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뜻을 넣어서 짓기도 하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뜻에서 짓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四柱)를 참고하기도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과 출신을 묻는 바라문에게 이름이 상징하는 계급제도의 철저한 부정과 이름보다 수행의 결과에서 오는 평안과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범명을 받은 인연으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법회소식 NEWS

- 10월 6일 (음력 8월 15일)은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한가위) 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 10월 8일 들째주 일요일에 “인등 및 영가 인등 기도”와 “송편 만들어 보기”등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 11시에 송편을 다함께 빚은 후에 11시 30분경에 기도가 시작 되겠습니다. 또한 이날 날씨가 좋으면 뒷마당에서 추석 가는 파티도 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웃놀이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십시오.
- 강석주 큰스님 기일을 맞이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십니다. 한국에서 이 기간동안 스님은 불국사 후원회 법회 및 불국사 한 평 불사에 정진 합니다. 스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정진옥 교수님을 중심으로 일요 정기 법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매달 3째주 일요일은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 탐구” 시간 입니다. 교리 탐구 시간은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십시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자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 초대 불국사 후원회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사는 경기도 부천 석왕사에서 9월 12일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들째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후원회 회원분들께서는 시간들을 내시어 매주 화요일에는 부천 석왕사로 가셔서 초대 불국사 후원회 회장님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9월 들째주 일요일인 9월 10일 2시에 세인트루이스 노인회관에서 세인트루이스 근교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점심공양이 있었습니다. 신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음식, 과일, 떡 등으로 성대하게 점심공양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백중기도비 및 노인잔치 동참 시주등 \$600 로 Centrum Silver 영양제를 30 통 마련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장수하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양제를 노인분들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대한 “노인잔치”를 준비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불기 2551년 (2007년) 달력 시주자: 박인주 (Angela Pak) 보살님
- 양모 이불 (3채) 시주자: 이종명 거사님 (New Zeland 거주자)
- 법당 장엄용 연꽃 시주자: 청운화 (우인) 보살님; 연꽃 잎 시주자: 대승행 변정자 보살님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팜플렛 4000부 시주자: 김일태 교수님

-부처님께서 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